

경북산 명품 사과, 도심 식탁 오른다

6일까지 서울 광장서 홍보행사
사과 전용관·통합브랜드관 운영
시중가보다 25% 저렴하게 판매
온라인몰 '사이소' 서도 동 진행
부대행사 등 즐길 거리 '한가득'

경북도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광장에서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4 경북사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

는 '어린이가 좋다, 경북 사과가 좋다'는 이중적 의미를 표현하는 '아이조아 경북 꼭지사과'라는 주제로 경북도와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농협이 주관한다.

4일 개최된 개막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서울시 정무 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대구경북농협협조조합장, 출향인사, 농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사과 산업을 주도하는 경북 사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 기간에는 도내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대표 품종과 신품종 등을 전시한 '경북 사과 명품관'과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품목으로 개발한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관'을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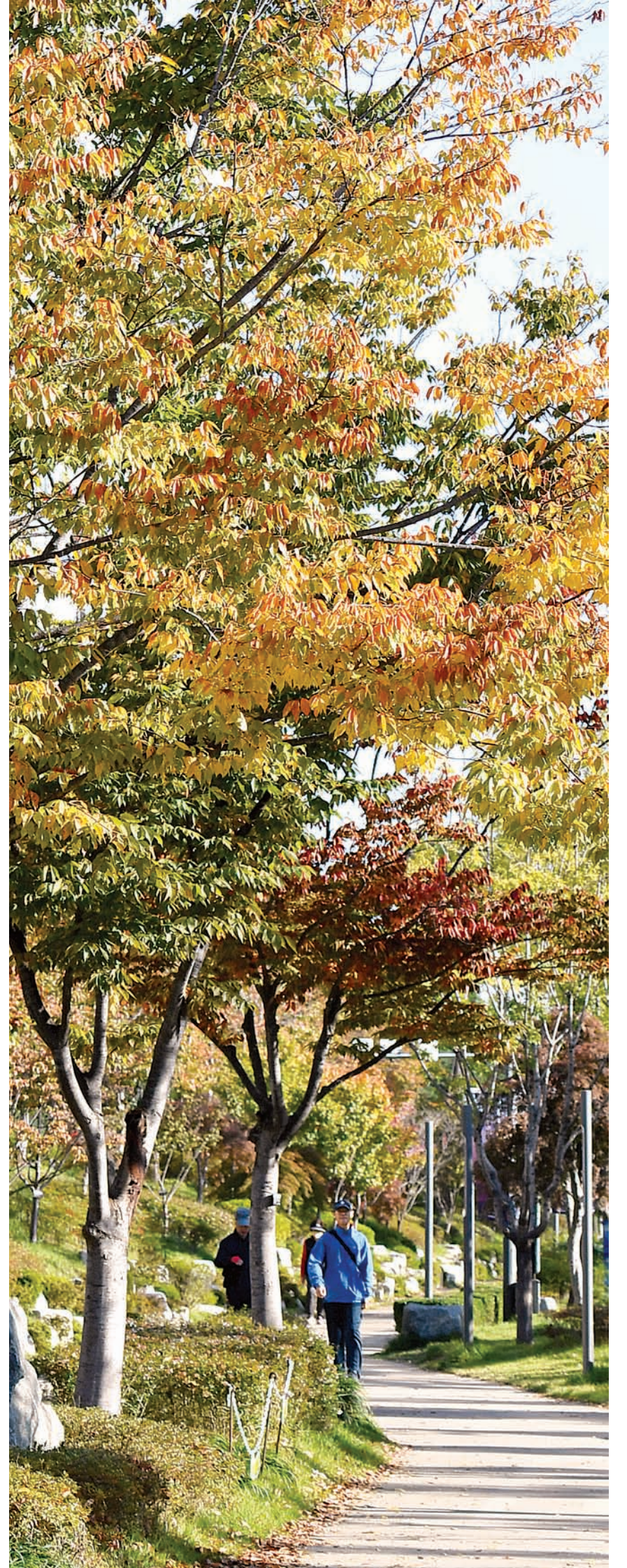
영한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꼭지사과를 직접 맛보고 시중가보다 약 25%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할인 판매(1만1000원/2.5kg)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 4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온라인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www.cyso.co.kr)'에서 특별 할인 판매(1만9900원/3kg)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행사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사과주산지 14개 시·군에서 준비한 홍보·시식 부스 등 먹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특별 이벤트도 진행해 도농 상생 실현의 장을 마련했다.

김학홍 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가 보증하는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경북 사과를 많이 사랑해달라"며 "앞으로도 경북도가 대한민국 사과 산업을 주도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명품 사과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행사와는 별도로 꼭지사과 소비자 인식 제고와 유통 정착을 위한 홍보 행사를 계속 이어간다. 후지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수도권 대형 유통 판매점(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 고양점 등 6개 지점)을 중심으로 홍보·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가을이 만든 황금길

4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철길 숲에서 시민들이 단풍으로 물든 가로수 아래로 걸어가고 있다. 뉴스1

'이철우號 저출생 정책' 완주까지 아홉 걸음

진도율 91% 집행률 79% '순항'
분야별 추진 가시적 성과 특목
교육개혁·고졸청년 지원 등 박차

경북도는 4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제24회 저출생과 전생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에 따르면 저출생과 전생 필승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의 진도율은 91%, 추경으로 1100억원이 투입된 예산 집행률은 7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성과도 속속 나

타나고 있다. 다소 미흡한 과제 9%는 주로 하반기 본격 시행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추진 성과를 보면 (만남 추진)청춘동아리 활동 2기(100명, 매칭률 48%), 솔로 마을 1기(26명 매칭률, 46%)를 운영해 평균 47%의 높은 매칭률을 올렸으며 4쌍의 혼인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행복 출산)산모 건강 회복 등에 특산 미역 5600명,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2850명, 어촌마을 태교 여행 184명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김천 의료원 분만산부인과'와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개소해 분만 50건, 신생아 124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완전 돌봄)공동체 마을 돌봄 모델 1호점 경산을 시작으로 총 30곳이 개소해 24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3곳(구미, 예천, 안동)에서 9곳(포항, 상주, 칠곡, 경산, 김천, 영주 등)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안심 주거)청년 신혼부부 1만3263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이달부터는 최대 월 30만원 24개월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올해 7억 원을 지원했고 청년 부부 15가구를 선

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73명,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90명을 지원했다. 또한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1호점은 지난 9월에 구미에 개소, 31명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다.

(양성평등) '우리 동네 아빠 교실' 138회 265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아동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은 현재까지 225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할인 5만원 쿠폰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에는 100대 실행 과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수도권 집중완화, 교육 개혁, 고졸 청년 조기 사회진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찰리푸스·빌리아일리쉬 음악 작업실이 대구로?

국내 유일 악기·음향기기 박람회
8일부터 3일간 엑스코서 열려

국내 유일의 악기&음향기기 박람회인 '2024 대구국제 악기 및 음향기기 박람회'가 오는 8일부터 3일간 엑스코에

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전시회는 120개사 200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전년(70개 사)대비 참가업체 수가 70%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 해외 참가업체도 확대됐다. 트라렉시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특이악기 등 다양한 악기와 트레코딩 장비, 앰프 등 음향기기 △방음부스, 마이크 스탠드 등 악세서리 등 다채로운 전시품목으로 악기와 음향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신규 조성관과 프로그램 확대에 더욱 풍성하다. △기타

(Guitar) 브랜드 콘퍼런스 존에서는 국내외 유명 기타 브랜드 40개 사가 참가해 코로나기타, 벤틀리리오 기타 등 다양한 기타(Guitar)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방음부스 전문업체 '뮤지쿠스'가 조성하는 △세계 유명 아티스트 작업실 전시존은 찰리푸스, 빌리아일리쉬 등 아티스트들의 홈레코딩 작업실을 재현한 부스로 홈레코딩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바이올린 마을(26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현악기 전시회) △클래식 악기 특별관(중고 클래식 관악기

150대 최대 30% 할인) △LP 레코드 마켓 △해의 특이악기 체험 등 특색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우쿠렐레, 국악기, 갈대 피리 제작 체험 등 참관객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색소폰, 오카리나, 기타 등 35개의 알찬 공연이 전시장 내 무대와 로비에서 개최돼 참관객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예정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입장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www.dima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 kwondrumkakao@daum.net

▶ YouTube 경상투데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은 최종 계약 체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TK 행정통합 도민 공금증 해결 '버선발'

7일부터 권역별 방문 주민 설명회 추진 경과 안내·주민 의견 수렴 동부권 우선 시행 누구나 참여 가능 플랫폼·토론회 등 홍보 속도전

경북도는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별 주민 설명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경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주민 설명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관단체,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행정통합에 관심있는 주민 등 누구나 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설명회로 운영한다.

설명회에서는 도 관계자 및 전문가가 행정통합에 대한 경과와 내용,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운영해 참여자의 궁금증이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부권 설명회는 경산에서, 북부권 설명회는 안동에서, 서부권 설명회는 구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을 만큼 모든 권역의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플랫폼과 브로슈어 제작·배포, 언론매체를 통한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 정보와 설명을 더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에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권역별 주민 설명회와 함께 도에서는 경제산업 분야, 건설개발 분야, 환

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도청신도시, 통합신공항 지역 등에는 추가적인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뜻인 만큼 권역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내용을 주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고 진행 과정에서 건전한 토론과 주민의견 수렴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박정우 새마을지도자구미협의회장 "연대로 활력 넘치는 새마을 만들겠다"

박정우(사진)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회장 후보자가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는 지난 1일 임시 총회를 열고 박정우 신임 회장 후보자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54명의 대의원(읍·면·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단독 출마한 박 후보자는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박정우 신임 회장은 축산업에 종사하며 지역 봉사단체 감우회의 회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구미시새마을회의 이사로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회원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열린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해 단합을 이끌어 내겠다"라며 "나눔과 배려,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새마을 단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선 구미새마을과장은 "박정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지속 가능한 혁신적 새마을 운동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는 해마다 자원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 쓰레기 수거, 읍·면·동협의회 활성화,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 환경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ub0104@hanmail.net

'경주 서악마을' 민관 협력의 대표적 혁신사례 자리매김

與 경기도의회 의원들 사업 극찬 문화유산활용·마을조성 벤치마킹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주에서 제4차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에는 월성원전을

방문했고 둘째날인 29일은 경주 서악마을을 방문해 (사)신라문화원의 서악마을 가꾸기 사업과 문화유산활용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직접 마을을 둘러보는 현장 정책회의를 가졌다.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특강을 통해 서악마을의 변천사, 문화유산 주변 정비, 문화유산활용 사업 등 혁신사례에

대해 강의하고 태종무열왕릉, 서악동고분군, 진흥왕릉, 서악동삼층석탑 등 주변 유적들을 안내하며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원들은 신라문화원의 마을가꾸기 대표 사례인 서악동삼층석탑 구절초 꽃밭단지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민간단체와 기업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대

표적인 혁신사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병길 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 중 하루를 경주 서악마을에 방문해 주민 경기도의회 의원분들에게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박상진 기자wba112@daum.net

청년농 육성 위한 2개 법안 패키지 개정 발의

이만희 의원, 범정부적 지원확대 최근 4년간 국내 청년농 규모 급감 한국4H법·후계농어업인법 제시 연영확대·조세감면 등 포괄 지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H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만5229명에서 25만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만 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H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축산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등 관련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대단원의 막' ... 김천 아포초와 알찬 여정

경북도의회는 4일 김천 아포초등학교 학생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5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김천 아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노키즈존을 없애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자 주제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청소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학생 식단 참여제를 위한 건의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날 의회 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니 처음에는 긴장도 뻘뻘했지만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아포초등학교가 위치한 김천시에 지역구를 둔 조용진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2024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해 그동안 27회 30개 학교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번 아포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의회 기능을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살아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회마다 참여 학생들이 큰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참여 학교의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 본회의장 소개와 서류증 수여 등 학생들과 소통하며 격려하는 등 청소년의회교실의

의미를 드높였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올해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5개 학교 4600여명의 학생이 다녀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조기퇴근 돌봄

-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 근로자 임금 보전
-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학교 돌봄

-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심야 돌봄

- 아이돌봄 서비스
- 24시 어린이집
- 아픈 아이 긴급 돌봄
-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온종일 완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道·오아시스 상생협력... 특판전 세일 '팡팡'

내달 15일까지 매장·온라인포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개 사 참가 밀키트·장류 등 최대 30% 할인

경북도는 경북 우수제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오아시스 매장과 오아시스마켓에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할인 특판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아시스 매장(직영점) 53개 점과 오아시스마켓(온라인몰)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개사가 참여하고 지역 특산물(사과, 포도 등), 밀키트, 홍삼, 장류, 전통차 등 1500여개의 다양한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 서막인 지난 4일, 오아시스마켓 길동점에서는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 안준형 오아시스 대표이사, 송경창 (제)경북도경제진흥원장, 박규섭 한울푸드 대표, 조규제 강훈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판전 시작을 알리는 오픈 행사가 열렸다.

이번 특판전은 경북도와 오아시스가 상생협력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경북도는 지역 내 우수제품을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오아시스는 수도권 53개의 직매장(회원 수 88만명)과 온라인몰(회원 수 190만명)의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제품 홍보와 판매촉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오픈 행사장인 오아시스마켓 길동점에서는 행사 첫날부터 일주일간 행운의 경북세일페스타

파격 제품을 최대 64% 할인 가격에 제공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오아시스만의 온오프라인(온니채널) 인프라라는 대기업 유통사와 견줄 만큼 제품 홍보나 매출 증가의 파급력이 크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오아시스 매장의 수도권 소비자들과 온라인몰의 전국 소비자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여 가을 시즌 소비 촉진의 시발점이 돼 내년까지 이어갔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우수성과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됐

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내수시장 흐름과 소비자 동향의 흐름에 맞춰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마케팅 전 과정이 담긴 경북세일페스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반 구축 분야의 △신규 상품개발 △맞춤형 마케팅(온라인 광고·쇼핑몰 제작) 지원, 역량 강화 분야의 △마케팅 교육 및 콘텐츠 제작(숏폼영상·상품리뷰) 지원, 입점 지원 분야의 △국내 주요 유통채널 초청 입점 품평회 개최, 판로지원 분야의 △유통채널 12개 사 협업 기획전 운영(할인쿠폰 및 상품 노출 지원) 등 단계별 성장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나에게 필요한 '마음건강 실천 가이드'

교육청, 학생·학부모 위해 배포 누리집서 누구나 내려 받기 가능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2024년 마음건강 실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정신건강 위기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학생용 가이드 '소중한 나, 소중한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마음건강 위기 신호를 알리고 자신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와 Wee 클래스, 생명사랑센터 등 상담 기관의 연락처를 수록해 학생들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학생은 "어떤 신호가 위기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 좋았다"라며 "필요할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게 돼 안심된다"고 말했다.

학부모용 가이드 '내가 지키는 내 아이 마음건강'은 자녀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중점을 뒀다.

자녀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변화와 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다가가는 대화법,



실질적인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 긍정적인 말로 힘어주기, 전문가의 도움 받기 등 실천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번 마음건강 가이드는 경북교육청 누리집 '학생생활과 자료실'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가이드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부모가 자녀의 심리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했다"라며 "가정에서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소방, 신속한 항공 이송으로 응급환자 생명 지킨다

전년 79건·올해 10월 33건 완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 노력"

경북소방본부는 응급의료 대란에 맞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며 여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항공 이송을 제공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9건의 항공구조 및 환자 이송을 했으며 지난 10월 기준 33건의 항공구조 및 환자 이송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북소방본부는 포항에서 추락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하자 즉각 소방헬기를 투입해 경남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달 포항성모병원에서 대동맥박리 환자의 전원 요청을 접수해

소방헬기를 이용 서울 소재의 병원까지 긴급 이송,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경북소방본부는 항공 장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긴급 상황마다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오현묵 경북119종합상황실 항공운항관제사 소방장은 "항공 이송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앞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한 응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열 본부장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소방본부의 이 같은 활약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딤편이크 꼼작마!"... 道 학생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힘'

등곳길 캠페인서 자료 배부 등 실시

경북교육청은 이달 4일, 5일 이틀간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딤편이크 기술 악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등곳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딤편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AI·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들에게 딤편이크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딤편이크의 정의와 악용 사례, 예방 방안, 피해 시 대처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운영해 딤편이크 성범죄의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

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MOU 체결과 TF 구성 등을 통해 딤편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스로와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딤편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사립고 시설 안전 점검 수능 전 수험생 안전 확보 '최선'

경북교육청은 오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고등학교 39개 교에 전문 기술 공무원을 투입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안전 점검은 안전 점검 전문성이 부족한 사립학교를 지원하고자 △건물 구조체의 균열과 변형 △대피로 관리 상태 △소방시설 유지 관리 △석축·옹벽·담장 균열 여부 △학교 인근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학교 자체 점검에 더해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추가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립학교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의 위험도와 공사



장 주변의 안전성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안전 우려 해소에 집중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를 하고 있다"라며 "사립학교의 시설물 안전을 높이고 앞으로도 수능 시험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월성중·경주정보고 총동창회

회장배 동문골프대회

일시 : 2024.11.12(화) 12:00

장소 : 경주 신리CC

주최 : 월성중, 경주정보(상업)고 총동창회

주관 : 수송골프회

접수문의

회	장 이승협(26회) 010-9413-7783
준비위원	장 김수광(27회) 010-2717-3569
사무총장	김영삼(32회) 010-2518-0303
사무국장	김동수(36회) 010-8856-7100
수송골프회 회장	김학식(30회) 010-3520-8338

경북도, GPS 추적으로 ASF 확산 저지한다



한돈협회, 포획트랩 100개 지원 경산·의성·청도에 집중적 설치 신속한 포획으로 전파 위험 차단

경북도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한돈협회 자조금을 활용해 GPS가 장착된 포획트랩 10세트(100개)를 설치했다. 포획트랩 추가 설치 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 확산 위험이 크고 멧돼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경산, 의성, 청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치로 경북도 내 포획트랩은 총 1100개로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운영하게 된다. 특히 추가 설치된 GPS 포획트랩은 포획 신호의 실시간 전송으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포획 개체에 상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포획하는 등 동물 복지를 고려한 방식이다. 포획된 멧돼지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및 주변 소독을 통해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포획트랩 운영 외에도 양돈농가에 멧돼지 기피제, 경광 등, 소독제 지원 및 소독 차량 운영 강화 등 이중·삼중의 방역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설치된 포획트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돈농가에서도 손씻기, 장화 갈아 신기 및 소독 강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유통 핸드크림 안전관리 기준 '이상' 無 보존제 7항목·중금속 5항목 모두 품질기준 '적합'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핸드크림 5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판명났다. 연구원은 핸드크림 성분 중 보존제 7항목과 유해 중금속 5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거된 제품 모두가 품질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보존제는 화장품 중 박테리아와 곰팡이 등 미생물 성장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며 안전을 위해 사용 한도가 규정돼 있다. 보존제 성분 7항목 중에서는 페녹시에탄올 성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5항목 검사 결과는 모두 허용한도 기준 이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존제의 종류와 사용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체내에 흡수되거나 접촉성 피부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은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검출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창일 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은 "손은 많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된 만큼 핸드크림 사용을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에도 생활 속 많이 사용되는 기초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상주 CCTV통합관제요원들, 상주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음주운전자 조기 검거 적극 기여 24시간 모니터링 활동 '큰 도움'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명이 음주운전 피험자의 추적관제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해 조기 검거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지난 1일 상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했다. 관제요원 A주무관은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30분경 심야 사건·사고 예방 집중 모니터링 중 계산동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관제하고 2차 사고예방을 위해 112에 통보해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관제요원 B주무관은 같은 달 19일 새벽 4시 20분경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 교차로에 장시간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 112



에 즉시 신고하고 추적관제해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했다.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시내 일원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모

니터링하며 특히 야간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황인수 안전재단실장은 "CCTV관제센터는 야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찬환 기자changwan2@naver.com

울진, 코로나19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키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 2순위까지 지원대상 폭 넓혀

울진군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2순위까지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하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범위는 사회 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대상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종사자들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 좀 더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임무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은 신분증과 증명서류(재직 증명서 등)를 지참해 보건소 혹은 위탁 의료기관 8개소에 방문하면 된다. 장소별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문의전화 가 필요하다. 단 의료인의 경우 본인인근무하는 병원에서 자체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추가로 4일부터 울진군민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60~64세 울진군민(1960년~1964년 출생자),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코로나19 대응요원(의료기관, 보건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소방, 경찰)의 경우 해당된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요원은 울진군 소재 기관에 종사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 위탁의료기관 등 예방접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군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겠다"라며 "접종 대상자는 따뜻한 겨울철을 위해 예방접종을 늦지 않게 받기를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예천, 발효사료 유익균 검사지원 '호응'

고초균·유산균·효모 등 검사 안정적 생산·품질개선 도와

예천군농업기술센터가 발효사료 내 유익균 검사지원 서비스로 축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산 농가는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해 발효사료를 자가 제조해 가축에게 급여하는 데 농가에서 자가 생산된 발효사료는 사용되는 재료와 제조 방식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정확한 품질분석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천군은 발효사료의 유익균(고초균, 유산균, 효모)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발효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친환경농업바이오센터에서는 총 9가지의 친환경 농·축산 미생물을 보급하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L당 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정호 소장은 "환경기를 맞아 가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축산기술팀(054-650-8174)로 연락하면 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중앙대 광명병원, 영덕에 의료지원 활동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20명 참여 중증환자 진료 지원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봉사단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지난 1일 영덕군보건소를 찾아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등 20명의 의료인력이 참가했으며 순환기내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총 5개 진료과 전문의가 동참했다. 봉사단은 심장초음파, 심전도검사, 눈 검진,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의료상담을 진행한 후 심장초음파

와 심전도검사 기기 등 다양한 의료 장비를 동원해 의료지원 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심장초음파의 경우 평소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거나 검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병원을 찾지 않고 검진이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광열 군수는 "지역 내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 복지에 목마름이 있었는데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의료봉사자 군민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방 도시와 병원이 동독한 관계와 협력을 이어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영역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힘 보태겠다”

인터넷신문협회, 경주시청 방문
주낙영 시장과 간담회 자리 가져
행사 홍보 활동 등 협력에 ‘최선’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주시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 30여명이 지난 1일 시청을 방문해 주낙영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시정 발전 방안과 APEC 정상회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 중소도시인 경주가 광역 단체인 인천, 제주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당당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라며 “이는 260만 경북도민의 하나 된 힘과 더불어 여기 계시는 언론 대표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기간 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등 주요 인프라와 SOC 핵심사업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상회의 특별법 제정 및 민간



분야 지원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도 마련해 APEC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주는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기반으로 현재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유치와 미래차 소재부품 플랫폼인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미래 첨단과 학혁신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경주의 또 다른 매력에 소개했다.

이의준 협회장은 “APEC 성공 유치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연상됐다”라며 “지난 2년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쉽지 않았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APEC 기간 동안 대대적인 경주는 물론 정상회의 행사 홍보에 있어서 경주시와 협력해

협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창립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사업, 뉴스콘텐츠 보호 및 정이용 환경 조성 사업 등 인터넷신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 생태계 창달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원자력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 ‘한자리에’

동국대 WISE캠퍼스, 워크숍 개최
산업 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통한
지역 대학·산업계 상생발전안 모색

동국대 WISE(와이즈)캠퍼스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교내 자연과학관 등에서 ‘K-LSI티 혁신원자력 산학연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교내 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지역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e솔루션의 주요 임직원, 원자력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욱 기획처장은 “경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등 많은 원자력 유관 기관이 있어 소위 원자력의 메카라고 말할 수 있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입지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협력으로 앞으로 더욱더 혁신원자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SMR 개발, 방폐물관리 등 대외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크숍 첫째날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인 ‘Net-Zero 2050’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원자력 증대 역할과 C2N(Carbon to Nuclear,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SMR 대체 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각광받는 소형모듈형원전(SMR)의 개발현황이 공유됐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전적 목표로 설

정한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고소비 국가에서는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며 주요국의 SMR 개발 방향에 발맞춰 이용 다변화가 모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Net-Zero 시대에서의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최근 사용후핵연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현황을 공유했다.

㈜강원e솔루션의 전광석 상무는 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 조동진 단장의 발표내용 중 내부 주철과 외부 구리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의 기술요건 등에 대해 질의와 함께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윤종일 교수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다변화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미래와도전의 조재선 부사장은 “향후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원자력의 역할 증대에 따라 원자력 전공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동국대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특히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도 진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 나갔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신라문화원, 교복 입고 추억의 수학여행 떠나요

(사)신라문화원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천안고 28회 졸업생을 비롯해 정촌초동기회, 김해고동기회, 진향란 노래교실 회원 등 200여명이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자들은 경주 무열왕릉 옆 서악 25번가에서 교복을 갈아입고 1일 담임선생님(문화해설사)과 만나 반장, 주번, 선도를 뽑아 완장을 차고 옛 수학여행지인 대릉원, 천마총, 첨성대, 불국사 등 경주 유적지를 돌아보며 간단한 레크리에이션과 진행했으며 낮 일정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 여흥과 만찬을 즐기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날은 동해안권 감포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파도소리길 등을 돌아보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시 대표관광프로그램인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은 타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단체로 교복을 입고 관광을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심을 끌었다. 이로써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해마다 20회 이상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문의가 들어

오고 있다.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관광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홍보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타 관광상품과 차별되고 홍보예산 절감해 프로그램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효과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진병길 원장은 “30년 동안 경주와 신

문화해설사와 사적지 탐방
누적 참여 3만명 돌파 ‘인기’

라문화를 알리는 데 매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 프로그램이다. 주로 1박 2일 코스로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있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경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문화원의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2023년 현재까지 해마다 2000여명 이상 참가해 누적 3만여명이 참가한 경주의 대표관광 프로그램으로 중장년층들의 추억을 관광 상품화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행사문의는 신라문화원 홈페이지(www.silla.or.kr) 또는 전화(054-777-1950)로 확인할 수 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교육청, 챗GPT 프로그래머와의 만남 운영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128명을 대상으로 ‘2024 화랑! 꿈 찾Go 미래 Job 고 챗GPT 프로그래머와의 만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화랑! 우리가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

이다!’라는 슬로건의 초·중·고 전문직업과의 만남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요청하기 어려운 전문 직업인 특장으로 구성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소질, 능력, 흥미를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상상털밭 CTO이자 나나컴퍼니 대표이사인 방병현 프로그래머·작가는 AI 기술의 발전과 챗GPT의 다양한 활용 사례, 나보다 똑똑한 AI와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준비와 자세 등 학생들에게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비전, AI와 협업을 통한 창의적인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했다. 이어 참석한 학

생 및 학부모들과 미래 지속 가능한 직업과 AI 활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손동현기자dogh031@naver.com

경주시, 2024년 시민상담대학 수료식 진행

청소년 상담 관심 시민 32명 수료

경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일 2024년 제8기 시민상담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시민상담대학은 청소년 상담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 개강해 총 7회 차 14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소년 상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청소년 상담의 기초, 청소년 성문화, ADHD 아동의 이해, 도형 심리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졌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상담에 관심을 가진 40여명의 시민들이 청소년 상담

지도자 양성 과정에 참여해 총 32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지역 청소년상담자원봉사회 모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물론 앞으로 지역사회 내 다방면의 청소년 상담 활동과 봉사자로서 역할을 펼치게 된다.

최연선 아동청소년과장은 “제8기 시민상담대학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상담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조력자가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동현기자dogh031@naver.com

5대 주정차금지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지돼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간주(화재 시 소방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과태료 8~9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시 각종 사고 위험). 과태료 4~5만원
-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멈춰 있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횡단보도가 가로막혀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차도 이용 등 위험 초래). 과태료 4~5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멈춰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원활한 차량 통행, 운전자 시야 방해). 과태료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이 불법주정차 대상!(주의)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집중 단속 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각각 1만원씩 추가
※소화전(5m 이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과태료 2~3배↑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대구, 시설물 안전관리 모범 사례 '자리매김'

군위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 최선"

국토부 주관 평가 '최상위 등급'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심사해 5개 항목 중 4개 항목서 '1등급' 시민 안전 최우선 노력 결실 맺어

대구시는 2024년 지자체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5개 항목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률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 제출률 △중대환 결함 보수 및 보강의 적기 조치 기한 초과율 △A·B 등급 양호시설물 비율 △D·E 등급 취약시설물 비율로 나뉘며 이 중 4개 항목에서 1등급을 한 항목에서 2등급을 획득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했다. 시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보다 나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

해 개선점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최상위 등급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구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

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시설물 안전 관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선발 최우수 '내 손안에 군위' 수상 영예

군위군은 지난달 31일 민원 또는 갈등 해결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부서에서 추천한 총 1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직원 설문조사와 공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건의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최종 적극행정위원회를 심의·의결을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1건, 혁신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매주 군정 주요소식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주민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한 '내 손안에 군위'가 수상했다.

'내 손안에 군위' 문자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서버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정책 참여 및 제도 안

내 등 정보활용 편의성을 증대해 시행 이후 약 6500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수상에는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직거래 모델 발굴로 공공형 먹거리 시장을 개척한 군위군 로컬푸드 '장바구니' 무인판매대 설치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 고시해 폐기물 수거 체계를 개선한 환경과의 사례가, 혁신상은 하상정비공사·배수로 정비공사 등 다양한 대비사업을 진행해 올해 집중호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사례가 선정됐다.

김진열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할 때"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포상금이 부여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태왕아너스 홍현지 프로, S-OIL 챔피언십 공동 3위 '쾌거'

교통공, 대중 교통발전·문화예술 진흥 '집중'

마지막 날 8언더파 64타 기록 달성 상금순위 39위 부상, 상승세 눈길

태왕아너스 골프단 소속 루키 홍현지 프로가 정규투어 출전 첫 해에 'S-OIL 챔피언십 2024' 대회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하며 상금순위 39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돌풍의 주역이 됐다.

홍현지 프로는 제주시 엘리스안 제주(파72, 675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인 3라운드에서 버디 9개에 보기 1개로 참가선수 중 이 대회 데일리 베스트인 8언더파 64타(68-70-64)를 기록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마지막 라운드 14홀(파5)에서는 드라이버와 세컨샷을 페어웨이 안착시킨 후 세 번째 아이언 샷을 홀컵 1.2m에 붙이는 정확성을 보이며 버디를 낚아채 김수지·마다숨 프로와 함께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로써 홍현지 프로는 지난 대회까지 상금순위 53위로 내년도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상금 5100만원을 추가로 적립, 현재 상금순위 39위에 이름을 올렸다.

홍현지 프로의 상승세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대보 하우스디 오픈(9월 20일~22일)에서는 공동 8위 △2024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10월 10일~13일) 14위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10월 17일~20일) 공동 7위 △S-OIL 챔피언십 2024(10월 31일~11월 3일) 공동 3위를 기록하며 최근 4개 대회에서 그 어려운 TOP10에 3번이나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홍현지 프로의 성적이 하반기 들어 상위권을 유지하자 현장에서 는 G투어 팬들에 이어 현장에서 홍현지 프로를 응원하는 갤러리도 부쩍 늘

어났다.

이날 현장에서 갤러리도 흥 프로와 함께한 표모씨(52·수성구 지산동) "친구들과 제주도에 놀러 왔다가 새로운 추억을 쌓아보자며 의기투합해 대구지역에 연고를 둔 태왕아너스 선수들을 응원하게 됐다"며 "막상 갤러리로 선수와 함께 라운드를 돌다보니 현장의 긴장감 속에서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에 빠져들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응원해 온 홍현지 프로가 성격까지 좋게 나오니 친구들 모두가 우승한 듯 같이 기뻐했고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왕아너스 골프단의 유지나 프로도 이번 대회에서 함께 9언더파로 공동 16위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노경원 골프단장은 "지난 2022년 3월에 태왕아너스 골프단을 창단한 지 3년 만에 정규투어 3위의 뛰어난 성적을 내 준 홍현지 프로는 물론 같은 팀 소속의 유지나 프로도 함께 9언더파로 공동 16위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메이저대회인 한화클래식 2024 대회에서는 공동 14위에 랭크될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며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태왕아너스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돌풍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LPGA 'S-OIL 챔피언십 2004' 대회는 제주지역에 많은 비 예보로 2라운드(11월 1일) 경기가 취소돼 애초 4라운드(72홀)에서 3라운드(54홀)로 축소됐다.

합계 15언더파로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린 김수지 프로(동부건설)와 마다숨 프로(삼천리)가 두 번의 연장 접전 끝에 마다숨 프로가 버디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문예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과 대중 교통발전과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뤄진 문예진흥원과의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시

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발 △시민의 문화생활과 예술인의 창작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우호적 상호협력이다.

김기혁 사장은 "도시철도 역사가 교통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활력 있는 곳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농협 대구본부, 달성 어려운 이웃에 쌀 선물

3000만원 상당 600포 나눔 '훈훈' 쌀 소비 활성화·농가 소득 기여

NH농협은행 대구본부는 쌀 소비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일 달성군 취약계층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우리쌀(20kg) 600포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우리쌀의 소중함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NH농협은행 대구본부에서 지원한 쌀은 달성군 내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사용된 쌀은 달성군에서 생산된 지역 쌀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수 본부장은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과 달성군 주민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에 지원해주신 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소중한 쌀을 지원해 준 농협은행 대구본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살국유사의
농교장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 5억↑ 판매고 기록

19개 읍·면·동, 농업인 단체들 재배 농산물 판매, 소비자 호응 한우·사과·인삼·인견 널리 알려

영주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천 문경둔치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부석사 잔디광장에서 개최한 '2024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영주시의 다양한 농특산물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방문객들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문경둔치에서는 영주시 19개 읍·면·동과 여러 농업인 단체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선보인 '팝팝! 판매장'을 운영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 기간 5억원 이상의 판매고(부석판매장 포함)를 올리며 소백산의 맑은 기운을 담은 영주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깊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축제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는 각 부설 농특산물 홍보와 이벤트 현장을 실시간 중계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 영수증을 제시한 선착순 고객에게 협쌀을 증정하고 톨렛 이벤트를 통해 사과와 계란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나누며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일 열린 세계유교문화재단 '싱싱콘서트'와 연계한 개막 축하공연에는 다이아믹듀오, 나태주, 시그니처 등 인기가수가 5000여명의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고 이어진 불꽃놀이 역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부석사 잔디광장에서 열린 사과 판매장에서 △관광객 노래자랑 △사과

짜기 대회 △사과주스 빨리 마시기 대회 △색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려 단풍을 즐기러 온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축제를 방문한 A씨(48)는 "해마다 풍기인삼축제에서 질 좋은 인삼을 구매했는데 이번 축제에선 영주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알게 됐다. 깜짝 경매 이벤트를 통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기분이 좋다"며 내년 축제에도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축제에 참여해 주신 관광객과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특히 6시 내고향 방송을 보고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영주한우와 사과, 풍기인삼과 인견을 비롯한 영주의 명품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부석사, 무섬마을, 영주호 등 영주 대표 관광지를 방문해 영주의 맛과 멋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예천, 파크골프 대중화로 지역 활력 '팍팍'

전국대회 등 8개 대회 연이어 열려 지역 특화 스포츠 '자리매김' 성과

예천군은 '제5회 경북도 파크골프 지도자 대회'와 '제7회 예천군수기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파크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파크골프 종목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대회 8개가 개최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는 가운데 예천군은 지난달 20일 7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제1회 회룡포&판테온배 전국파크골프 대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2개 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파크골프의 새로운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5회 경북도 파크골프 지도자 대회'는 대한파크골

프협회 1·2급 지도자 및 심판으로 등록된 도내 선수 45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2일에는 지역 내 2개 클럽대항인 '예천군수기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가 열려 지역 동호인들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

오는 11일에는 '제6회 경북도 북부지구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며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파크골프 대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김학동 군수는 "올해는 우리 예천군 최초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를 지역 특화 스포츠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내년 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한천 3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봉화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군수와 아이들의 특별한 만남

봉화초 1학년 12명, 군청 초대 문답 통해 학생들 자부심 고취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일 봉화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명을 군청으로 초대해 지역 사회와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봉화군정의 역할과 지역 사회를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노력을 직접 느끼고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청 견학 중 학생들은 "봉화군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군수님께서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현국 군수는 "현재 봉화군은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정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박현국 군수는 봉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아이들이 지역 사회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변했다.

박 군수와와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봉

화군이 자신들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학생들은 "군수님께서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 알게 돼 좋았다"며 봉화군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이 군수님과 만남을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체험 학습의 의미를 강조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영양에서 솔로탈출'... 청춘남녀 모여라

20일까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영양군은 바쁜 일상과 만남의 기회가 적은 결혼 적령기 미혼 청춘남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영양에서 솔로탈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30일부터 1박 2일간 장계향문화체육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영양에서

솔로탈출'은 미혼 청춘남녀 각 15명이 참여해 흥미로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대상은 1985년~1999년생으로 영양군 지역 내 공공기관에 직장을 둔 미혼남성, 여성은 경북 거주 또는 소재 기업 종사 중인 미혼여성이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의 인연을 만나 결혼하고 지역에 정착해 인구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안동시 '읍면동 체육대회' 성황리 막 내려

시민 건강 증진·체육 발전 노력

안동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각 읍·면·동 체육회가 주관하는 '2024년 읍·면·동 체육대회'가 지난 7월 북후면에서 시작해 이달 2일 강남동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읍·면·동 체육회장협의회의 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종목으로 읍·면·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민화합을 다지고자 건의함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됐다.

주관하는 읍·면·동 체육회뿐만 아니라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내 기

관·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에 힘을 보태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권기창 시장은 "처음 개최되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도록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 열기를 이어받아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윤호 체육회장은 "읍·면·동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의성군 '스마트 재난관리 플랫폼' 자문회의

의성군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재난관리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전문가의 견수를 위해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첨단기술개발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 각 분야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성형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재난관리플랫폼 구축 방향성 및 기존 감시체계 호환성 검토, 실시간 감시·예측 시뮬레이션 구현, 플랫폼 구축의 명확한 목표설정 및 적용 방안 등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재난관리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 및 토론회로 진행됐다.

주요 제시된 자문의견으로는 국가안전시스템개발총합대책 등 중앙정책에

맞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명확한 시뮬레이션 구축 방안 수립, 스마트 재난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개별 임무메시지 부여 및 군민 정보공유, 주요 재난유형에 첨단 감시장비(IOT 센서) 도입 등 스마트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보완할 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김주수 군수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급변하게 될 미래사회에 맞춰 재난안전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재난의 예측과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며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스마트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개강

2024.9.27~11.8(매주 금요일, 18:30) 분황사 경내

추천분황사 주관분황사, 분황사 원효문화대학 운영위원회

문의 054 742 9922/ 대상 일반시민(무료강좌)

09.27 원효스님의 생애와 사상 - 남동신(서울대학교)

10.04 분황사 모전석탑과 신라의 불탑 -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장)

10.11 신라의 사리신앙과 사리공예 - 김연수(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10.18 신라명필 김생의 필적을 찾아서 - 박홍국(전 위덕대학교)

10.25 신라불교와 보살 - 이주형(서울대학교)

11.01 분황사와 신라의 불상 -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11.08 분황사에서 듣는 빈센트 반고흐의 삶과 예술 - 이태호(전 명지대학교)

구미시립도서관, 전 세대 문화공간으로 우뚝

도 도서관 운영 실적 3분야 1위 방문자·대출권·장서 수 '3관왕' 변화·혁신 추구의 '동적 도서관' 다양한 프로그램·행사 '큰 호평'

구미시립도서관이 경북도 내 도서관 운영 장서 수·방문자 수·대출 권수 실적 3개 분야에서 3관왕 달성을 통해 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관당 평균 장서 수 13만964권, 평균 방문자 수 23만3543명, 대출 권수 14만5839권을 기록했다.

현재 구미시 도서관 총 장서는 약 81만권(2024년, 알파스 기준)에 달하며 이는 구미시가 추진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과 도서관 시설 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구미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축제와 지역서점 인증제 등을 통해 지난 2월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제56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구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장에 힘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개관한 산동도서관이다. 산동도서관은 AI와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형 도서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연면적 3149㎡ 규모의 산동도



서관은 미디어월과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로봇 '산이'와 '동이'가 방문객의 도서 검색과 안내를 돕는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VR·AR 체험 공간과 영 어자료실의 학습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역시 변화를 준비 중이다. 이 도서관은 도심 속에 위치한 공영 속 도서관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95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멀티 액티비티

공간, 유아·어린이 자료실, 북카페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설 확장 외에도 구미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그중 제3회 구미독서문화축제는 지난달 5일과 6일 이틀간 저명한 작가들의 북토크, 독립출판 북페어, 책 문화 체험 부스, 버스킹 공연 등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료됐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는 책이 문화적 자 원으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구미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독서문화 확산에도 앞장

서고 있다. 한국폴리텍구미캠퍼스와 협약을 맺어 신간 도서를 비치하고 구미소방서와 MOU를 체결해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 주는 선생님' 사업을 시작해 청년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도서관은 시민의 성장을 돕고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구미시립도서관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김천시립도서관, 市 역사·문화 체험 '성료'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문화해설사 강의로 재미 더해

김천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2일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골벽적 어린이 인문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날 인문학 탐방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김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와 문화재를 방문해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김천시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참여자들은 먼저 김천시립박물관을 방문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김천의 역사와 유래를 알아보고 김천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과 문화재를 관람했다. 박물관 내 문화체험실

에서 진행된 문화재 탁본 체험, 탑 쌓기 등 역사 관련 체험활동은 탐방의 재미를 더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사명대사 공원을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며 전년 고찰의 직지사사를 방문해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며 불교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봤다.

마지막 시간에는 유형 문화유산인 김산향교를 방문해 향교의 역할과 함께 유교사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탐방을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김천에 거주하면서 몇 번 가보았던 곳이지만 문화해설사님의 강의를 들으니 새롭게 느껴졌고 아이와 함께 김천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하루가 돼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극찬'

전국서 모인 1000여명의 철인들 첫 대회임에도 완벽 준비 돋보여

고령군은 지난 2일, 3일 다산문화공원과 다산면 일원에서 열린 '2024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철인들이 아름다운 고령의 자연을 배경으로 열린 레이스를 펼쳤으며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로부터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대회라는 극찬을 받았다.

대회는 낙동강에서의 수영, 낙동강의 풍광을 볼 수 있는 도로를 따라 진행된 사이클, 다산면의 명물인 은행나무 숲이 둘러싼 달리기까지 철저히 계획된 코스를 제공했다. 철인들은 고령군의 멋진 자연 속에서 한계를 넘는 도전이 이어가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수영 출발 전 질은 안개로 잠시 출발이 지체됐지만 대회 운영진의 빠르고 전문적인 대응 덕분에 경기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남철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가 이곳 고령군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 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이번 대회로

철인 여러분들이 고령군을 깊게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자원봉사자를 포함, 이번 대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사를 표했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틀간 고령군관광협의회(회장 김용현)와 함께 대가야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해 철인들에게 고령군을 알리고 특히 손창형 대회준비위원장이 지역 교육을 위해 교육발전 기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의미를 더했다.

손창형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철저한 준비가 돋보인 특별 환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완주한 선수들에게는 수육과 피자 등 정성 어린 먹거리가 제공됐고 즉석 노래자랑과 시상식이 함께 열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해명 고령군철인3종협회장은 "다음 대회에는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더욱 안전·철저한 준비로 전국 최고의 철인3종대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일상 속 살아 있는 모두의 보훈' 성주, 보훈단체 소통간담회 개최 독립운동 기념관 조성 등 호응'

성주군은 지난 1일 성주군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9개 보훈단체장 및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성주군 보훈단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단체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했으며 이난희 주민복지과장의 군정 주요 사업 및 사회복지·보훈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성주군 보훈회관 준공, 흥훈탑 정비사업,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이난희 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훈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상주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노력' 열매 맺다

안전점검 시군평가서 '최우수상' 각종 수상·공모 선정 등 성과 커

상주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군평가에서 경북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상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수상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각종 재난예방·수습·복구, 안전시책 개발, 안전문화정착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대가로 이뤄낸 것이다.

또한 안전총괄부서인 안전재난실 재난방재팀은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팀 선별에서 '지평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적극 추진', '내서면 서원리 재해취약지역 정비', '인명피해우려지역(급경사지) 인명피해예방 철저' 및 '여름철 자



연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등 5개의 적극행정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안면 구미리 일원에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의 풍수능 부족 등에 따른 생활권 단위의 종합정비로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416억원이다.

이 밖에도 CCTV관제팀에서는 올해 상반기 도내 베스트관제센터로 선정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인증패 및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강영석 시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안전상주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조방낙지
대표 손 일 희

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

(주)강산투어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

공간종합주방
대표 양 주 석

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

청도군-필리핀 카빈티시, 협력관계 '돈독히'

영덕군, 양성리·장사리 침수 피해 막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사업비 254억 확보

카빈티시대표단 7명, 지역 방문 계절근로자격려·근로환경 점검

청도군은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맺은 필리핀 카빈티시 아란틀리 아로요 시장을 대표로 한 대표단 7명이 청도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카빈티시 대표단의 첫 공식 방문으로 청도군과 카빈티시 간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청도군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날 김하수 군수와 전종을 청도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청도군 관계자들은 필리핀 카빈티시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두 지자체 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김 가공 농가와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숙소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근로현장 방문에 이어 카빈티시 대표단은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으로 이동해 홍보영상과 전시실, 신거역 등을 둘러보며 새마을운동이 청도군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 및 발전돼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청도군을 방문한 아란틀리 아로요 시장은 "청도군의 초청과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필리핀 카빈티시의 근로자들이 청도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청도군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으며 청도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도록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가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며 청도군과 카빈티시 간의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해 국제 교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첫해인 지난해 84명을 시작으로 단 한 명의 불법 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을 더욱 확대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 지원에 적극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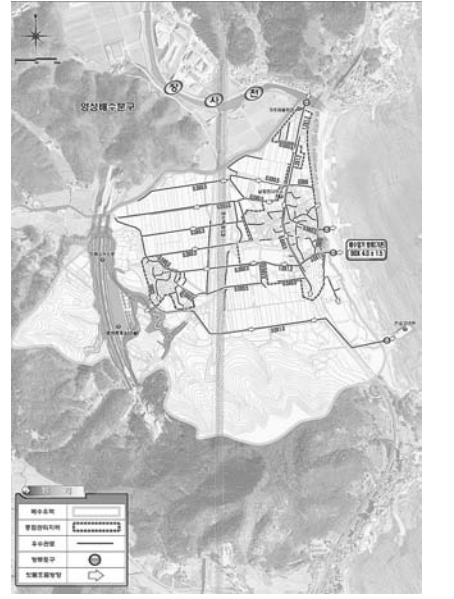
김병열기자artmong0@naver.com

영덕군 남정면의 양성리와 장사리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2024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침수 대응 사업비 254억원을 확보했다.

남정면 양성리는 분지 형태로 집중 호우가 오면 하수처리장으로 처리 용량 이상의 하수가 유입돼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장사리는 지역 일부가 해안선과 차이가 거의 없는 저지대인 지리적 입지로 인해 잦은 침수가 발생해 왔다.

이에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중앙부처에 침수 방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고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달 30일을 기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영덕군은 이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2025년부터 총사업비 254억원(국비 152억원, 지방비 102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해당 지역에 관로와 빗물펌프장을 설치해 침수 피해에 해소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열 군수는 "남정면 양성리와 장사리는 침수 예방 사업이 절실한 지역이기에 이번 성과가 더욱 반갑게 다가온다"며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환기자shghks70@naver.com

2024 경산만화축제 '성료' ... 市, 웹툰 산업 중심지로 '거듭'

공연·참여 프로그램 진행 '호응' 서상길 만화 전시관 등 눈길 끌어

경산시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일대에서 지난 1일, 2일 이틀간 열린 '2024 경산만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장 메인 무대에서는 '피터팬과 함께하는 마법의 음악 공연', '툰(TOON) 콘서트', '독고택 책 이야기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모바일 컴쇼', '독고택을 이겨라'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인기 만화 캐릭터 조형물과 캐릭터 탈인형, 서상길 만화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으며 캐릭터 인형 네컷, 초크아트존,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입체(3D) 펜 캐릭터 그리기, 캐리커처 체험, 툰 플리마켓, 한일 문화교



류 페스티벌 등 여러 부대행사도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서상길 청년문화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은 '서상길 13만화 투어(TOUR)'에 참여해 서상길의 주요 지점을 돌아다니며 만화와 벽화를 감상했으며 한옥카페 내

에 마련된 '서상 만화방'에서 만화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조현일 시장은 "올해 처음 열린 경산만화축제가 지역 만화인과 시민이 함께 주도해나가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포항시, 지역대학과 '동반성장' 머리 맞대

협력 실무추진단발족·키오프 회의 RISE등 변화된 정부 정책방향안내

포항시는 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지역-대학 협력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키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추진단장인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포스텍, 한동대, 선린대, 포항대 등 지역 대학과 관련 부서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대학 협력 실무추진단'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정부의 '글로벌대학 30'과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변화된 대학지원 체계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대학30과 RISE 체제를 주제로 변화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내했으며 교육부 중심의 기존 하향식 대학지원 추진 방식이 아닌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향성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포스텍과 한동대에서는 대학별 지역 협력 사업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

명했으며 지역대학들이 포항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현안 사업과 관련해 지역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포항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과 대학 간의 사업 추진 전략 및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로 향후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포항시와 지역대학이 긴밀히 협력해 포항을 대표하는 혁신적 인재와 첨단 연구 기술을 함께 성장시키는 동반성장의 모델로 나아가겠다"라며 "이번 지역-대학 협력 실무추진단이 그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인재 양성에서부터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의 이중고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현기자dogh0311@naver.com

재경영천향우회 회장, 고향사랑 실천 '훈훈' ... 500만원 기탁

재경영천향우회(회장 김희태)는 회장단 3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2일 이틀 동안 가을을 맞아 고향 영천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희태 회장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복지시설 봉사활동, 고향 문화방, 회장단 단합대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일차에 영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김희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영천시에 기탁했으며 150만원의 담례

품을 복지관에 기부해 영천 향우들의 큰 귀감이 됐다. 기탁식에 이어 김옥자 부회장이 복지관 강당에서 기타, 색소폰 공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쳐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풍요로운 소리의 향연을 선사했다.

정식열기자jisy92920@hanmail.net

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

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

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

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

☎ 010-3953-7576

문경에코월드, 지역관광개발 우수사례 '선정' 칠곡 '매일매일 칠곡소풍' 성공적 마무리

문화체육부 장관상 '대상' 수상 높이로 생태 배우는 체험 상품 관광객 유입 '경제 활성화' 도모

문경시는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한 '2024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에서 문경에코월드가 지역관광개발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전국 34개 지역관광개발사업 중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을 선정했으며 문경시 문경에코월드가 대상을 수상했다. 문경시는 문경에코월드 개발단계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이라는 명확한 표적 시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놀이 통해 생태를 이해하는 체험 콘텐츠 등 경쟁력 있는 체험 상품을 준비했다.

또한 문경에코월드 운영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평가 및 컨설팅 의견을 반영해 문경시는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테마파크 주제를 강화하고 인근 관광지 및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 강화, 관광 트렌드에 맞춘 공간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이 참여해 생태·환경·문화를 주제로 관광객 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페스티벌, 영화제, 탄광문화행사, 매거진 제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협력 전시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

문경에코월드는 경북도 문경시 가은

읍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석탄박물관, 가은 오픈세트장, 가은모노레일, 에코타운, 자이언트포레스트 등을 통합해 복합문화 테마파크로 운영 중이다.

남명섭 관광진흥과장은 "대규모 시설 조성 후 시설 활성화를 위해 운영조직과 적절한 역할 분담, 지역 청년들과의 협력,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개장 후 5년 이상 지나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 보

수와 신규 콘텐츠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국 시장은 "전국에서 추진한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문경에코월드와 연계해 인근 가은읍에 관광용 테마 열차 조성, 가은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문경에코월드를 방문한 관광객이 읍내로 유입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관광·에코 연계, 전국에 군 알려
지속 가능한 여행문화 조성·캠페인

칠곡군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에코(ECO)'를 주제로 한 2024년 '매일매일 칠곡소풍'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매일매일 칠곡소풍(vol.2 칠곡에코투어) 프로그램은 경북도가 지원하는 '시·군별 대표 관광상품 발굴·육성 사업'으로 지난해 '칠곡 호국평화 토크 투어' 등 테마 여행상품 개발로 MZ세대와 소통하며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대표 프로그램인 '칠곡에코페스타'에서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 초청 토크 콘서트와 인플루언서 '산타는 유정'과 함께 하는 에코 토크쇼도 진행했다.

관광자원인 낙동강, 팔공산, 가산산성 등 자연자원을 알리고 최근 관광 트렌드인 관광과 에코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여행문화 조성, 에코 여행 캠페인을 통해 칠곡군 관광을 홍보했다.

여행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에 가산산성에서의 '아티(Atti)-어스(Earth)' 트래킹 프로그램은 시작으로 한티가는길 트래킹과 백패킹을 함께하는 '제대로 페스타', 칠곡군 낙동강자전거길을 알리기 위한 '자도라지 마이트 투어' 등 테마 여행상품 개발로 MZ세대와 소통하며 홍보하는 기회가 됐다.

대표 프로그램인 '칠곡에코페스타'에서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 초청 토크 콘서트와 인플루언서 '산타는 유정'과 함께 하는 에코 토크쇼도 진행했다.

송홍필 기자song031700@naver.com

영주에서 만나는 힐링여행...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눈길'

SNS 홍보단 초청, 팸투어 진행 주요 명소·체험 등 지역 알리기

영주시는 '2024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 기간 중인 지난 2일, 3일 SNS 홍보단을 초청해 '영주에서 만나는 힐링여행'을 주제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영주의 다채로운 여행 콘텐츠를 알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 홍보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홍보단은 영주 농특산물 대축제장을 비롯해 부석사, 장수발효체험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영주의 매력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특히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에서는 피로 해소 프로그램과 싱잉볼 명상 제



험 등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주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

이 외에도 영주시민의 차별화된 흥

보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SNS로 소통하는 영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팸투어 일정은 영주시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단의 개인 SNS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김종길 홍보전산실장은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에 일정을 맞춰 개최된 이번 팸투어가 '체험하는 도시, 가고 싶은 도시 영주'를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주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알릴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발족한 '2024 영주시 SNS 홍보단'은 영주의 자연 명소, 맛집, 축제와 행사 등 계절별 관광자원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영주의 매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영양, 민원감동 칭찬직원 선정... 친절 분위기 만들기 '앞장'

장문옥·이영우·선상훈 3인

영양은 4일 직원 조회 시 적극적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로 민원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3분기 민원감동 칭찬직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민원감동 칭찬직원 3명을 선정해 근무 표창과 함께 포상금 1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포상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를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직원 중 1차 부서 평가 후 영양군 공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분기 수상자로는 주민복지과의 장문옥과 이영우, 생태공원사업소의

선상훈 주무관 총 3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군민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오도창 군수는 "성실하게 일하고 친절할 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영덕군, 과수 농가의 경쟁력 확보 '초집중'

20일까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영덕군은 FTA로 인한 시장 개방에 대응해 고품질 과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지난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 복숭아, 배 과원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대구경북농업협 영덕경제사업장과 영덕농협 우곡간이지점·지품지점, 북영덕농협 창수지점에서 가능하다.

사업내용으로는 품종갱신, 관경,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방풍망시설 등이며 올해는 방산팬, 미세살수장치 등의 재해예방시설을 추가한다.

또한 농업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해예방시설은 오는 2026년까지 한 시점으로 지난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조성된 과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의 홍보를 통해 지원받는 농가를 확대하고 과실생산비 절감 및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 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호환 기자shghks7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대표 현 병 희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더블에이치플랜

Mobile : 010-3517-1105



대구시립국악단, 한 폭 그림 같은 '韓 전통무용 멋과 일' 선보인다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회관 전통춤·전통창작무용 등 구성 백경우·정운형 특별출연 '눈길'



대구시립국악단 40주년 특별기획 한국무용의 밤 '환희지무' (연출 및 안무 채한숙, 대구시립국악단 한국무용 트레이너) 공연이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회관 팔공홀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한국 전통무용과 전통창작무용으로 화려하게 구성된다. ◆ '춘앵전', '무고', '가인전목단' 등 격조 높은 궁중무용의 화려한 무대 공연의 막을 여는 무대는 궁중정재로 '춘앵전', '무고', '가인전목단'을 차례로 선보이며 다시 이들 춤을 어우러지게 한 무대에 올려 궁중무용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조선조 순조 때 순원숙황후의 40세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 추어졌던 '춘앵전'을 첫 순서로 해 시립국악단의 40주년을 축하한다. 원래는 궁중무용의 유

일한 독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웅장하게 군무대형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이어지는 '무고'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원무가 '무고'라고 불리는 북을 싸고돌며 추어지는 춤으로 크고 훌륭한 북소리가 울림을 전달하는 격조 있는 춤이다. 무대 중앙에 활짝 핀 모란꽃을 뜻한 목단화준을 놓고 무원들이 편을 짜서 꽃을 희롱하며 춤을 추는 '가인전목단'

은 특히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궁중무용이다. ◆ 전통창작춤 '군자무(매란국죽)' 사군자의 특성을 한국무용으로 표현 전통창작춤 '군자무(매란국죽)'는 대구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상일이 작곡한 퓨전국악곡 '매란국죽'을 무용곡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지난 1990년에 이 곡을 써서 국립무용단에서 초연한 바 있으나 이번 공연

에서는 채한숙 안무의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인다. 신시사이저의 전자음이 어우러진 국악곡에 매·난·국·죽을 전통춤의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표현해 한국 춤의 새로운 면모를 선사한다. 특히 사군자 중 남성적 기상을 나타내는 '죽(竹)'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한국무용가 백경우(백경우무용단 대표)가 특별출연해 멋진 춤사위를 선보인다.

◆ 판소리 적벽가 전수자 정운형이 들려주는 조자룡 활 쓰는 대목 이번 무용공연에서 감상할 수 있는 판소리 무대가 있다. 바로 판소리 다섯마당에 꼽히는 판소리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쓰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중한 소리 대목으로 적벽가의 대표적인 눈 대목이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전수자이며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으로 있는 정운형이 특별출연해 남성적이고 웅장한 적벽가의 판소리적 묘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완판, 대구 최초로 선보인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강선영류)는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은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민속무용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양반의 복장으로 궁중풍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춤이다. 여타 한국무용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디딤세의 기교가 현란하면서도 조금하지 않은 절제미를

보여준다. 보통 태평무를 공연할 때는 공연시간 등을 이유로 춤의 일부만 선보이는 식으로 공연되나 이번 공연에서는 대구최초로 태평무완판을 선보인다. 세계에 진출 만큼 뛰어난 예술성의 태평무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연출 및 안무를 맡은 대구시립국악단 한국무용 채한숙 트레이너는 "대구시립국악단 창단 40주년에 걸맞은 격조 있는 무대를 위해 전통춤 특히 궁중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전통창작무용과 판소리까지 곁들여 풍성함을 더했다. 마지막 무대인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대구에서 최초로 태평무완판으로 선보이는 뜻깊은 무대이다"라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대구시립국악단 40주년 기념 한국무용의 밤 '환희지무'의 입장료는 전석 1만원으로 공연 문의는 대구시립예술단 (053-430-7655), 예매는 인터파크 (tickets.interpark.com/1544-1555)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동서양의 악곡을 '한 번에' 안동문화예회관, 로비음악회 오늘 오후 2시 옹부홀 로비 진행

아즈마 아키 열정의 무대에 경주시민 '큰 호응'



공연장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은 신선한 문화예술 경험을 지역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지역예술인공연지원사업인 '아티스트 인 안동 로비음악회'를 5일 오후 2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옹부홀 로비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을 진행하는 휴엔아트는 박진숙을 대표로 소프라노 이현진, 박진미, 테너 손혁, 바리톤 권대일, 바이올린 서민정, 첼로 김명지, 피아노 임경미, 김아람, 대금 임성국으로 구성된 융복합 예술단체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 라크메, 김효근의 첫사랑, 김영동의 삼포 가는 길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동서양의 악곡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특히 대금이 구성돼 있어 클래식과 함께 한국적인 선율을 감상할 기회다. 음악회는 전석 1만원으로 50석 한정이고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 (http://www.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수 기자oms7227@nate.com



2024 경주재팬위크 콘서트 열려 트로트·엔카 등 다채로운 곡 선봬 '2024 경주재팬위크'의 하나의 행사인 아즈마 아키 콘서트가 지난 2일 경주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시장,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 등 내빈을 비롯한 한일문화포럼 회원, 팬클럽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경주 아즈마 아키 콘서트는 1부와 2부 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또한 목포의 눈물, 동백야가씨, 새벽길, 비내리는 영동고 등 유명한 곡들을 한국어와 일본어를 넘나들며 공연을 했다. 12개 국어를 하는 아즈마 아키는 특유의 목소리와 감성으로 일본 엔카를

비롯해 한국 트로트와 민요, 애니메이션 OST 등을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등을 섞어가며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 특히 관객들의 환호성과 많은 앵콜 요청으로 인해 준비된 노래가 모두 떨어질 만큼 그날의 콘서트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아즈마 아키는 "경주에서 꼭 공연하고 싶었고 많은 시민이 공연을 보러와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다"며 "공연이 끝난 후 경주 관광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즈마 아키는 일본에서 음악의 공주로 불릴 만큼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일가왕전', '한일토크쇼' 등에 출연해 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다. 손동현 기자dohg0811@naver.com

대구미술관, 내면 안정 찾는 힐링의 전시회

싱잉볼 명상과 권오봉 전시 감상 9·10일 오전 10시 3전시실서 진행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제24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권오봉'의 전시 연계행사로 '무제 (Untitled): 나를 비우는 명상법'을 오는 9일, 10일 오전 10시 대구미술관 3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무제 (Untitled): 나를 비우는 명상법'은 싱잉볼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이다. 싱잉볼 (Singing bowl)은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히말라야 지역의 명상 도구로 싱잉볼을 연주할 때 발생하는 소리 파동이 신체 휴식과 이완을 돕는다. 어린이 영아 요가, 성인 요가, 바로크 음악회, 현대무용 등에 이은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권오봉 작가의 역

동적인 신체적 행위와 자유로운 선의 형상이 담긴 작품 속에서 몸의 감각을 자가 진단해 보고 싱잉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행사다. 모집 대상은 성인 40명 (회차별 20명)이며 참여는 오는 30일부터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 (yeyak.daegu.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미술관 입장 시 (성인기준 1000원) 별도의 추가 참가비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노중기 관장은 "대구미술관은 교육,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미술관 경험의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미술관 누리집 (daeguartmuseum.or.kr)을 참고하거나 커뮤니케이션팀 (053-430-7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예천박물관 '진성이씨 문중' 학술대회 개최

8일 오후 2시 예천청소년수련관 예천군은 예천박물관이 오는 8일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천 진성이씨 문중의 역사와 활동'을 주제로 '2024년 예천박물관 역사 인물 학술대

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천의 진성이씨는 호명을 백송리, 종산리, 내신리, 은풍면 은산리 등에 집성촌을 이뤄 세거(世居)하면서 위기지학(爲己之學, 자기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한 학문)을 실천하고 불의(不義)에

항거해 의병(義兵)을 일으키는 등 예천을 대표하는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예천 진성이씨 유학의 특성과 그 현대적 의미', '진성이씨 예천 입향조와 역사인물', '예천 지역 창의(倡義)의 전통과 진성이씨 가문의 역할'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신상기 청송연합향우회장 취임식



청송군은 지난 2일 전국청송연합향우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경희 군수, 심상휴 군의회 의장, 신효광 도의원, 군의원 그리고 향우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전국청송연합향우회 발전을 이끌었던 윤천수 회장의 뒤를 이어 신상기 회장이 취임했다.

신상기 취임 회장은 "역대 훌륭한 회장님들에 이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큰 영광과 함께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며 "전국청송연합향우회는 물론 고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국 기자 wdr1211@hanmail.net

문경보건, 보건진료소 운영 논의



문경시보건소는 지난 1일 13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 및 보건진료소장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현국 시장의 격려와 올해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 신연 갈평보건진료소 소장의 사례발표,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보건진료소의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일차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진료소 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 등에 대한 요구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으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 hyun0085@daum.net

제12회 봉화군수기 골프대회, 성황리 마무리

30개 팀 120명 선수 기량 펼쳐

봉화군 골프 동호인들의 한마당 행사인 제12회 봉화군수기 골프대회가 지난달 31일 예천 한백CC에서 개최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봉화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봉화군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지역 내 30개 팀, 총 120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펼쳤다.

읍·면부, 클럽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는 1라운드 18홀 경기로 진행됐으며 신페리오 방식의 개인전 외에도 단체전, 매달리스트, 풍기스트, 니어리스트, 다바디, 다파, 다보기 부문에서도 1위를 가려 대회의 재미를 더했다.

대회 시상내역은 단체전 읍·면부 △우승 석포면(23타) △준우승 봉성



면23타 △3위 물야면(24타), 클럽부 △우승 봉연회(235타) △준우승 봉화군청(240타) △3위 힐링골프(242타)이다.

또한 개인전 신페리오 △우승 최봉수(69.6타) △준우승 김동룡(70.8타) △3위 류창호(71.2타), 매

달리스트 △남 정재식(72타) △여 임미경(83타), 풍기스트 △남 김대호(223M) △여 강순화(172M), 니어리스트 △남 김주영(0.8M) △여 배진숙(1.6M), 다바디 △박종일(4개), 다파 △이승호(15개), 다보기 △양대근(14개) 등이 차지했다.

박현국 군수는 "골프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 웰빙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봉화군 골프 저변이 확대되고 동호인 간 친목과 화합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경북문화관광공 "새로운 관광미래 개척 노력"

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 체결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 제1회의실에서 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 관광반세기 가치 재조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와 역사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역사 관련 자료 공유 및 전시, 관광연구사업 협력 및 학술 교류, 관광역사 재조명을 위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관광반세기가 지났지만 국

내에 관광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및 전시, 교육 및 홍보시설이 전무하고 특히 글로벌 관광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전략과 연계해 관광역사 가치 재조명의 필요성에 따라 향후 POST APEC의 중점 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김남일 사장은 "다가오는 2025년은 공사 설립 50주년이자 보문관광단지 지정 50주년, 특히 2025 APEC 경주가 개최되는 등 뜻깊은 한 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관광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관광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 wba112@daum.net

봉화 소천면, 고추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봉화군 소천면은 지난달 31일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군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천면사무소 직원 20여명이 지역 내 농가(분천리)를 방문, 고추밭 지주

대 및 멀칭비닐 제거 작업을 지원했다. 윤미영 면장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지보면 예성신협, 지역 아동에 후원금 전달



예천군 지보면 소재 예성신협은 지난 1일 제2회 후원자-아동 후원의 밤을 위한 '어부바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예성신협이 후원하고 주최했으며 군 지역아동센터 7개소 연

합회와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예성신협은 이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총 350만원 상당을 후원, 각 센터당 5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동 정

기업체 CEO소통 간담회 참석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5일 오전 11시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교육감-기업체 CEO(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다.

웅계리 은행나무 상식 30주년 행사

권기창 안동시장은 5일 웅계리 은행나무 앞에서 열리는 안동 웅계리 은행나무 상식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화남면 걷기대회·산불예방 캠페인

최기문 영천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화남면 일원에서 열리는 제14회 화남면 걷기대회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45회 시각장애인 화합마당

윤경희 청송군수는 5일 오전 11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5회 원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화합마당에 참석한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착수보고회

최재훈 달성군수는 5일 오후 2시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한다.

안동, 읍면동 산불감시원 발대식



안동시 각 읍·면·동에서 올해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불감시원 발대식'이 개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결의문을 낭독 하고 산불 예방 교육 및 근무요령,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예방 역량을 강화해 산불 예방의 지를 다졌다. 앞으로 산불감시원들은 산불 발생 주원인인 △인산자 실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등을 단속 △마을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을 통한 계도와 홍보 △등산객 화기물 소지 단속 및 강력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명수 기자 oms727@nate.com

Large advertisement for 'Gurum Gyeok' (Group Gyeok) featuring a scenic illustration of a mountain and water, and a detailed table of program information including dates, times, and content for various sessions.



봉화소방서와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지난 1일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과 재난 대응 위기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지속적인 소방전문지식 교류와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 체결 후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및 학생 60여명은 △소방안전문화 사진전 관람 △봉화 소방 역사 홍보 전시관 관람 △오늘은 나도 소방관 프로그램 체험 △봉화읍 노유자시설을 방문 등 소방안전교육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태호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 지역 홍보 서포터즈의 역할, 지역 경제 살리기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봉화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최선'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상주 일원 캠퍼지에서 지역 내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 7가족 19명을 대상으로 2024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가족지원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다른 가족들과의 소통 시간을 통해 학부모들은 학생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들과 함께 요리해 나눠먹으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 화합의 시간이 가졌다.

이영록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가족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더불어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주)네이처팜 대표, 임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청도감말랭이 명품화·판로개척 "바른 먹거리 생산 재배능과 협력"

청도군은 농업회사법인 (주)네이처팜의 이정수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제5회 임업인의 날 행사에서 산림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주)네이처팜은 반건시, 감말랭이, 아이스 홍시 등 청도반시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 수출국은 일본, 호주, 베트남 등이 있다.



이정수 (주)네이처팜 대표는 지난 4월 산림청 지리적표시 제62호로 등록된 '청도감말랭이'의 지리적표시권자인 청도반시가공협동조합의 대표

로도 활동하고 있어 명품 지역 특산물인 청도감말랭이의 명품화와 판로개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정수 대표는 "청도반시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알리고 바른 먹거리 생산을 위해 재배능가와 협력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정수 (주)네이처팜 대표님의 대통령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청도군의 대표 특산품인 청도반시의 명품화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영해중학교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세요"

영덕군 영해중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일 포항 남구 송도동에 있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학생들은 연탄재가 묻은 장갑 때문에 흐트러진 마스크와 안경을 고쳐쓰기도 어렵고 생각보다 연탄이 무거워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의 격려와 칭찬에 보람을 느끼며 구슬땀을 흘렸다.

홍상규 교장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지역 내 이웃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면서 교육복지 대상 학생뿐 아니라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봉사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길 바란다"라며 "아이들이 그로부터 삶의 힘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끌어 줄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문경 적십자봉사회,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는 지난 1일 점촌5동 지역 내 17개 경로당과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센터에서 정성으로 만든 '사랑의 빵' 25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전달된 '사랑의 빵'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정희 회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문경시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며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안계라이온스, 쌀나눔 봉사활동 '솔선수범'



의성군 안계면은 지난달 31일 안계라이온스클럽에서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통해 안계 서부 7개 면에 쌀 113kg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쌀은 각 면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안계라이온스클럽은 이달 집수리 2가구와 연탄지원 3가구 봉사도 함께 진행한 상태다.

안계라이온스클럽은 지역 내 추진력 있고 지역복지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로 의성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옥영배 회장은 "서부 7개 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눠 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대한 많은 분에게 도움이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기훈 면장은 "기부해주신 쌀은 지역 내 식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에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김천, 부항댐 전국가족걷기 '성료'



김천시는 지난 2일 개최한 '제8회 김천부항댐 전국가족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천의 대표 관광자원인 부항댐 호반길을 가족, 지인들과 함께 걷는 걷기대회 행사는 해마다 김천시와 영남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경북도가 후원하는 가운데 올해로 여덟 번째 대회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보건대 밴드부 컬러리스, 아랑고고장구의 식전공연과 개막식, 5km와 10km 참가자의 출발로 진행됐고 걷기대회 후에는 노래자랑과 초대가수들의 공연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흥겨운 분위기도 함께 연출했다.

김충섭 시장은 "아름다운 부항댐에서 걸으며 건강도 얻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영양, 청소년 버스킹 INSTAR 열어



영양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일 어울림터마당 야외무대에서 청소년 버스킹 INSTAR을 개최했다.

올해로 세 번째로 펼쳐지는 청소년 버스킹 INSTAR은 영양군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Starlike의 주체로 이뤄진 청소년 주도행사로 기획부터 홍보, 운영까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총 7팀 3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끼와 열정을 무대 위에서 펼쳤고 보석 십자수 그림 톱 만들기, 슬라임 만들기, 타로, 홍보 부스 등 다양한 부스 운영으로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과 학교, 지역, 문화, 예술 사이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고향사랑기부제

영주사랑을 전해주세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주가 아닌 영주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연 500만원 한도 내)
-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 e음 (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금융기관 대면접수(NH농협은행)
- | 기부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 공제),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 | 답례품 | 농·축·임산물 (인삼, 사과, 쌀, 한우), 가공·제조품 (홍삼가공식품, 인견제품, 한과, 와인, 부각, 꿀, 장류, 차류, 유제품), 상품권 (영주사랑상품권)

문의 : 영주시 세무과 054) 639-6451~6454



46만 관광객 대통합의 장



제18회

청송 사과 축제



제 18회 청송사과축제가 지역주민, 관광객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지난 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송읍 용전천 현바람 일원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18회 청송사과축제에는 구름과 같은 인파 46만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장에 구름인파가 물리면서 자연히 축제는 활기를 띠었고 각종 체험 홍보 부스, 사과판매 부스, 식당 등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청송사과 끝없는 비상”이라는 주제로 선보인 이번 청송사과축제는 시간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축제를 병행해 방문자 수 100만명이 넘어서는 대기록을 세우며 온라인 축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다. 또한 가족 중심의 콘텐츠도 대폭 강화돼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북도와 함께 ‘가족이 행복한 축제 한마당’을 개최해 가족사진 인화 서비스, 사과 외출 만들기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방문을 이끌어 냈다.

청송사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송사과 꽃줄유키 전국 경연대회’에는 청송군 지역 내 8개 팀과 그 외 전국 4개 팀, 총 12개 팀이 참가해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했고 청송사과 퍼레이드, 풍물 경연대회 등을 통해 8개 읍·면 주민이 축제의 주인이 돼 관광객들과 화합함으로써 주민 참여 축제의 면모를 제대로 선보였다. 또한 행사장 주무대와 소공연장에서 5일간 펼쳐진 군민들의 재능기부 공연을 비롯해 청송황금사과 배 전국고교장사씨름대회, 내 고장 청송 알기 퀴즈대회, 청송낙동정맥등반대회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냈다.

올해는 특별히 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사과탄산주스, 사과식초, 사과마스크팩, 청송 사과 굿즈들과 사과를 활용한 간식류 등을 시식·판매하는 ‘사과존’을 특별히 조성했으며 사과바삭불고기, 사과퓨딩 등 청송사과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6·8종의 요리 및 디저트도 시식·판매함으로써 청송사과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올해 청송사과축제는 지난해 늘어난 관광객에 비해 부족했던 주차장과 화장실을 확충하고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으로 축제장 내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했으며 예상치 못한 우천에도 불구하고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직접 축제장 정비에 발 벗고 나서며 축제장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다운 운영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윤경희 군수는 “올해 청송사과축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 많은 관광객의 찬사에 힘입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송사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송사과축제를 방문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영국기자wdr1211@hanmail.net

5일간 온오프라인 축제 병행 100만명 초대박 구름인파 판매부스·식당 문전성시, 온 가족 추억 만들기 ‘앞장’ 마스크팩·바삭불고기·퓨딩 등 이색 상품에 이목집중 주차장·화장실 확대로 편의 UP, 바가지요금 타파 솔선 축제장·행사장 곳곳 정비에 공무원들 발 벗고 나서 대호평 윤경희 군수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칼럼

원조 금융허브 런던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다. 맨섬 (Isle of Man)이다. 아일랜드해 한가운데인데 더블린과 리버풀에서 거의 등거리이다. 켈트족 후예들이 주로 산다고 한다. 인구 약 8만의 영국 자치령이다. 나는 오래전 스위스에서 금융법 실무를 할 때 이 섬에서 온 변호사들과 함께 일한 기억이 있다. 그냥 영국 사람들로 보였다. 이 섬은 조세피난처 중 하나다. 역의 금융센터다. 지난 2014년의 경우 정부 수입의 17%가 온라인과 보험산업에서 발생했다. 자본의 세, 부유세, 상속세 다 없다. 법인세율도 0%다. 회사의 주주명부 작성 의무가 없어서 탈세에 매우 편리하다. 유럽 각지의 부자들과 도박 같은 문제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일부 원주민들은 그런 회사의 이어나 가짜 주주 역할을 해주면서 소득을 올린다. 자금세탁, 마약거래, 불법 무기거래, 러시아 마피아들의 사업 등 불법과 범죄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거기서 나오는 돈은 런던의 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영국에서 금융은 대장간 사업자들이 시작했다. 대장장이들이 금을 다뤘기 때문이다. 대장간 사업자들이 보유했던 금은 런던타워에 설치돼 있던 왕실 화폐주조소에 보관했는데 찰스 1

세 (1600~1649년)가 어느날 그 금을 다 몰수해 버렸다. 그러자 왕실을 믿지 못하게 된 사업자들이 귀족들과도 금 거래를 시작했다. 금을 보관하고 일종의 보관증을 써줬다. 보관증 외에도 제3자에게 반환을 지시하는 서류도 금과 함께 수령했다. 은행권의 시초다. 지난 1650년에 노팅엄의 한 의류 상인이 처음으로 은행을 열었고 1694년에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Bank of England)이 설립된다. 스코틀랜드은행은 그 한 해 뒤다. 미국 뉴욕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이전에는 영국 런던이 그 역할을 했다. 특히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지금 기준으로 117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 경영을 했던 '찬란한' 19세기에 런던은 세계사 최초의 글로벌 금융허브였다. 런던은 지금도 영국 경제를 떠받친다. 국토면적의 0.001%를 차지하지만 GDP의 3.5%를 책임진다. 런던의 금융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시티 (City)라고 불리는 구역에 모여있다. 은행만 500개가 넘는다. 면적이 1제곱 마일 정도로 여의도 크기다. 이 지역은 템스강 가 로마인들의 거주 지역에서 출발했다. 지난 1706년에 건립된 세인트폴 대성당이 시각적으로 지역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융기관들뿐 아니라 영란은행과 런던 증권거래소가 있다. 다수의 정부기관, 법원과 매직서클 로펌도 이 지역에 있다. 거주자는 1만명 정도지만 일하는 인구는 거의 100만명에 가깝다. 그중 4분의 3이 금융과 비즈니스에 종사한다. 조금 더 동쪽이 런던의 신 비즈니스 구역인 카나리 워프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글로벌 강자로

부상했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확고한 선두 경제국가가 됐다. 영국은 미국에 산업국 최강자의 자리를 서서히 넘겨주면서 금융에 무게를 두게 된다. 지난 1979년 10월 영국은 2차 대전 이래로 유지해 오던 외환거래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그리고 다시 7년 후에 대대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이행했다. 그 파장이 커서 빅뱅 (Big Bang)으로 불렸다. 금융혁명에 버금가는 이 조치로 런던은 글로벌 금융 중심의 위치를 되찾는 듯이 보였다. 지난 1986년에 하루 5억달러였던 증권거래가 1995년에 가서는 20억달러를 넘어섰다. 금융회사 M&A도 활발해졌다. 1990년대 런던은 수조 달러 규모의 파생금융시장이 됐다. 2020년 브렉시트가 발효하기 전까지 런던은 뉴욕과 1인자 자리를 다투다가 2023년에 야마도 최종적으로 그 자리를 내준다. 런던의 금융시장은 크고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크 사이드도 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다. 지난해에 영국의 외무부 부장관이 전 세계의 문제 있는 돈 중 40%는 런던의 씨티를 거쳐 유통된다고 한 적이 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온 돈이다. 러시아 돈도 적지 않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더 늘어났다. 그래서 런던은 세계 최대의 자금세탁소다. 범죄자들은 거기서 번 돈을 런던의 고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멸명한 금융인 행세를 한다. 탈세는 기본이다. 영국 국민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탈세다. 런던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자존심은 접어둔 모양이다.

뉴스1

독자기고

경찰관의 수신호에 잘 호응해 주시길

나은호
영천경찰서 동부지구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5t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경우가 있었다. 다행히 화물차량 운전자의 현명한 대처로 큰 차량과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 차량은 2차선 도로 갓길에 정차하게 됐다.

당시 화물차량 적재함에는 4t 정도의 액체비료가 들어 있는 상태여서 사고 차량 이동을 위해서는 보다 큰 견인 차량이 필요했다.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으로 올 때까지 순찰차를 사고 화물차량과 적당한 거리에 정차시켜 경광등 리프트를 작동하고 경찰관 2명은 수신호 (경광봉)를 위·아래로 수신호를 해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후행 차량에 도로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미리 알렸다. 2시간 남짓 수신호를 하는 동안 대부분 차량 운전자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차량 속도를 낮추고 장소를 안전하게 운행했지만 일부 차량운전자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더 속도를 내어서 사고 장소를 지나치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분명 수신호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감속 지

시를 하는 경찰관을 충분히 봤을 것이다. 한편 주취자가 주택가 이면도로 바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가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길로 갈 것을 안내하니 '돌아가면 길이 멀다'며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주취자 보호조치는 인적사항, 주취지, 다친 곳이 있는지 단순히 주취로 인해 넘어진 것인지 등을 조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다른 길로 갈 것을 당부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나에게도 당장 불편함이 있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활동을 하므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수신호에 잘 호응해주시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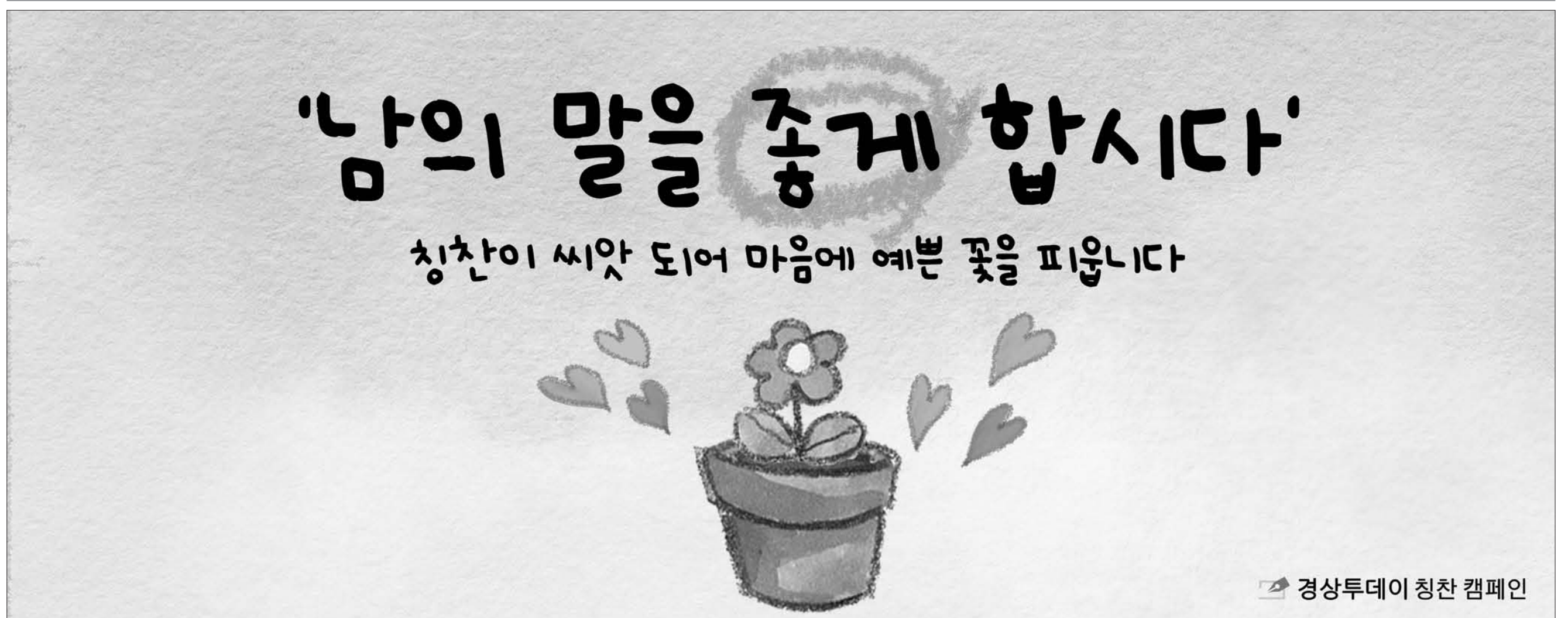
사설

공수처... 정치권의 '미필적 고의'

정치권의 공수처 소환이 잦아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쟁점이 생길 때마다 '묻지마 고발' 식으로 공수처를 찾았다. 추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댓글팀 의혹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고발하는 등 정관계를 가리지 않았다. 모두 진상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중복으로 고발된 건도 적지 않다. 이 지검장과 한 대표의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가 같은 혐의를 고발한 터였다. 국민의힘도 공수처 수사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이 추진되자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담당 수사 검사 연임 결정을 임기 만료 직전까지 끌었다. 그런데 정치권이 진정 공수처가 쏟아지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감내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냉정한 얘기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쏟아지는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배당할 여력이 부족하다. 최근 검찰이 불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도 담당 검사가 퇴직해 새 검사에 사건을 다시 맡겨야 하는 처지다. 이날 기준 공수처 소속 검사는 16명이지만 이 중 수사를 맡지 않는 처·차장과 사직서 제출자를 제외하면 수사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 1개 부서 (반부패 1부)나 중소도시 지방검찰청 지청 규모다. 최근 한 달 새 4명의 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다. 이에 비해 지난해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2401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검사 1명당 200건의 사건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부장검사 3명을 제외하면 입직 기간이 3년을 넘긴 검사는 2명에 불과하다. 변호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첫 수사를 시작한 초임 검사가 대부분이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요구하지만 수사와 변호가 같을 리 없다. 권력자 부패를 파헤쳐야 할 검사 임기는 3년에 불과하고 14억3000만원인 내년 수사 예산은 올해보다 2억9000만원 줄어든 게 공수처의 현실이다. 사건 관계인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독립 청사도 없어 피조사자들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한다. 공수처 정상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도 지난 국회에서 검사 임기 연장, 예산 독립 등 관련법을 30여건 발의했다. 그러나 판·검사 증원을 둘러싼 입장에서 공수처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한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 세 번은 고의라는 말이 있다. 공수처 정상화 해법을 외면하는 정치권은 '미필적 고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다. 정쟁 때마다 생기는 사건은 쌓이고 검사들이 떠나는 일은 일상이 됐다. 검사 수사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해야 한다. 22대 국회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수사 촉구가 공명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경상투데이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 / 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4

경주시 제12회
청소년가요제

The 12th Youth Song Festival

제12회 경주중심상가 청소년가요제 & 댄스페스티벌

가요제
 +
 댄스 페스티벌

2024
11.23 (토) / 10:00 ~ 19:00

봉황대 야외 특설무대

Dream,
 스타를
 꿈꾸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투데이 홈페이지 참조
www.gyeongsangtoday.com